

# 수험장서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 거부시 수능 무효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 반입 불가  
교시마다 2~3명 감독관 배치

내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에서는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시 국어와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이 얼굴을 확인한다. 특히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은 시험장 반입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은 올해부터 답안지가 분리되고,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2개를 동시에 풀거나 2교시에 1교시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블루투스 이어폰 등 건물 내 반입 금지...4교시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어야

올해 수능 시험실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 당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입실한다.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이 배치된다.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등을 확인한다. 특히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두고 수험생이 본인인지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수험표와 얼굴을 면밀히 확인한다. 수험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건물 내에 반입할 수 없다. 투명 종이나 연습장, 개인사프, 참고서 등은 시험장에는 갖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이다. 이처럼 시험장 또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갖진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여러 과목 중 최대 2개의 선택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

어야 한다.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안과 2선택 답안만이 구분된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4교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각각 분리돼 제공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최대 다음 연도도 응시자격 정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나 수신호, 무선기기 등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령 이후 종료된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 정해진 과목 시험

지를 보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푸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의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경찰 수사에 의뢰한다. 실제 2019년 치러진 지난 2020학년도 수능 당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됐다.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됐으며, 대리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계획이나 목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소재 385개 학교에 손 보호대 설치

올 1분기에만 사고 1661건 발생  
강화유리문 1만180곳에 설치

서울시교육청이 1억여 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까지 서울 소재 385개 초·중·고교 강화유리문(강화도어) 1만180곳에 손 보호대를 설치한다. 학교 내 강화유리문 손끼임 사고가 올해 1분기인 1~3월에만 1661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시 학교안전중앙공제회 조사 결과에 따라

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강화도어 손끼임사고는 초등학교에서 450건, 중·고등학교에서 1211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6월 강화도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수 예산 1억여 원을 긴급 편성했다.

시교육청이 강화도어 안전 강화기구인 '손보호대' 설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서울 내 1397개교 중 385개교가 손보호대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만180곳 중 40.7%에 해당하

는 4140건이 교체 완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0개 학교의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 1만2331개도 보수할 예정이다.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기동점검보수반"을 통한 학교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 손보호대와 화장실 잠금장치 설치를 모두 마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과 협약

미래문화예술 인재양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대테러·방첩분야 커리큘럼을 구축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윤석, 이하 서울문화예술대)가 미래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위해 (사)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과 맞손을 잡았다.

13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에 따르면, 항공보안학과는 지난 9월 (사)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총재 정효진)과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정보자료도 교환하게 된다. 또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주요 시책 홍보도 함께 꾸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윤석 총장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청이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



조성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항공보안학과 학과장(오른쪽)과 정효진 (사)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총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문화예술대

사권을 넘겨받게 되면서, 방첩·대테러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 안보수사 전문 요원 경력경쟁(경제/특채) 채용 시험을 실시한다"며 "관련 전공 학사(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및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 지는데 서울문화예술대 항공보안학과는 인서울 4년제 대학 유일하게 대테러·방첩분야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는 학과"라고 소개했다. /이현진 기자

## 노화세포 제거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

정혜원 건국대 교수 연구팀  
망막조직 재생능력 높여

정혜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연구팀이 노화를 조절해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망막에 축적된 노화세포를 제거하여 망막조직의 재생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13일 건국대에 따르면, 정혜원 교수의 연구팀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유자형·김채규 교수 연구진은 노화세포만 제거해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후보 약물을 도출했다.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노인성 황반변성은 망막 내 노폐물 축적 및 망막 색소상피 조직의 퇴화를 특징으로, 50대 연령층에서 약 5%, 60대 연령층에서 약 12%,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8%에 가까운 유병률을 보이는 심각한 안질환이다.



정혜원 교수 연구팀은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의 망막에는 만성 염증반응 환경을 지속 시키면서 주위 조직을 손상시키는 노화세포가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노화세포만 제거해 망막조직의 재생능력을 높여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가설을 기반으로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동물모델들을 이용해 망막 내 축적된 노화세포가 황반변성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약물평가를 수행해 노화세포만 제거할 수 있는 임상학적 가치가 높은 약물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적용해 황반변성 동물모델에서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생체재생능력을 회복시켜 황반변성 병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강북삼성병원  
이노비 힐링 랜선음악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병동음악회가 멈춰진 상황에서 서울사이버대가 랜선음악회를 제작해 병원에서 상영하며 음악회를 진행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는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달간 강북삼성병원 로비에서 '이노비 힐링 랜선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성악과 교수들은 지난 4년간 사단법인 이노비와 함께 강남 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음악회, 서울대학교 암센터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등 음악회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없는 환우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해왔다.

이노비와의 협업으로 서울사이버대 차이콥스키홀에서 촬영한 음악회에서는 김연주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오르간을 연주한다.

/이현진 기자

## 대학생 86% "취업 위해 휴학·졸업유예"

평균 6개월 이상 졸업 늦춰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 휴학과 졸업유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졸업유예 중인 대학생 중 10명 중 6명은 앞서 휴학도 경험했다. 인크루트와 알바콜(대표 서미영)이 재학생과 유학생, 졸업유예자 등 대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휴학과 졸업유예에 대한 요즘 대학생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올해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 기준 평균 졸업 소

요기간은 5년 1.5개월(남자 6년 1.1개월/여자 4년 5.9개월)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남자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요즘 대학생은 바로 졸업하지 않고 평균 6개월 이상 졸업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은 휴학 중이었다. '휴학 중'과 '재학 중' 응답은 각각 34.1%, 65.9%였다.

특히,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절반 이상(56.3%)은 휴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